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11, pp. 353-361, 2018
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8.16.11.353

학사경고를 받은 대학생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적 접근

이봉숙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A Narrative Study within the Experiences of University Students Who were Placed Under Academic Probation

Bongsook Yih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ha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학사경고를 받은 대학생이 학업에 대한 내적 자기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파악해 보고자 함이다. 질적 연구방법 중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내면적 사고의 흐름을 추적해보고자 하였으며,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Burke의 내러티브 분서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학습 환경이 변화되는 시점인 대학입학 전·후를 기점으로 자아의 변화과정을 4가지 주제로 도출하였다: '만들어진 우수한 아이', '우수한 아이 코스프레', '부족한 자아와의 만남', '독립된 실체와의 만남'. 위의 4가지 주제는 학사경고라는 사건을 극복해 가고자 하는 인간내면에 존재하는 강인한 독립적 탄성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대학차원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내면적 자기 동기화 능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소프트적인 내용과 기존의 학습지원방법이 병행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본다.

주제어 : 학사경고, 학습방법, 학업미성취, 자존감, 서사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lived experiences of university students who were placed under academic probation. A qualitative research design was used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ith 4 students who had experiences of low academic achievements at least once during 5 semesters. Low self esteem was the main issue in this study and inner struggles were identified within 4 themes: Outstanding students controlled by helpers; A costume play as a outstanding student; Realize that I am a under academic achiever; Realize who I am and what I have to do. This study identified that low academic achievement brings to low self esteem seriously, however, human being has strong resilience in the traumatic circumstances. Thus, it is absolutely necessary devoting efforts to develop suitable student supporting programs in the way of inner and outer network systems.

Key Words : Academic probation, Learning strategy, Underachiever, Self esteem, Narrative stud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은 학업적 측면, 대인관계적 측면 그리고 개개인의 정신건강적 측면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미래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를 의미한다[1-3].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은 중도포기를 선택하게 되는 상황으로 발전하기 쉬우며, 최근 3년간 전국대학 평균 중도탈락률은 2015년도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Sehan University in 2017.
*Corresponding Author : Bongsook Yih(yihb@sehan.ac.kr)
Received August 10, 2018 Revised October 10, 2018
Accepted November 20, 2018 Published November 28, 2018

3.92명, 2016년 4.14명 그리고 2017년 4.18명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4]. 김대현 외[5]의 연구에 따르면 타 대학진학, 성적경고 제적, 경제사정 등이 대학입학 후 학업을 중도 포기하게 되는 주된 원인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대학서열화로 인해 타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 포기는 학업수행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학업의 환경변화이지 학업의 중단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많은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중도포기라는 대학생활 부적응은 학업성취 여부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업성취여부는 학업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특히 중·고등학교 때와 달리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학업환경이 주가 되는 대학에서 학업적 요구에 부응하며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많은 연구들은 이를 사회구조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으로 나누어 그 원인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먼저,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언급된 학업실패의 요인으로는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한 개인 간의 학력차와 학습부진학생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6], 그리고 인문계 학생과 실업계 학생의 큰 학습능력 편차[7]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원인은 결과적으로 학교나 학과에 대한 애착과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다음, 학생 개인적 측면에서 언급되고 있는 학업부진의 요인으로는 학습 환경에 대한 부적응이 대표적이다[9]. 대학의 학습 환경은 부모와 교사 중심의 외부 주도적인 학습 환경이 아닌 학생개인의 주도적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학습 환경이다. 이러한 학업환경의 전환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적응이 학업실패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8,9]. 이는 곧 학습전략과 학습습관 등을 포함한 학습방법에 대한 미숙함으로도 볼 수 있다[8]. 또한 학생지지체계에 대한 원활한 활용 및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때도 학업 부적응은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지지 체계의 활성화 방안을 강조하는 연구도 다수 발표되고 있다[10-12].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습지원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습자의 학업역량을 증진시키고 대학생활적응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2,9].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활에서 나타나는 학업부적응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학업포기, 열등감 등 부정적 자아개념 형성, 진로결정의 불확실성 등 많은 파생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2,10].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접근으로 학생들이 처한 내면적 문제들을 그들의 목소리로 생생히 짚어보고자 하는 탐색적 연구들[12,13]이 발표되고 있으나 학업부적응을 과거 중·고등학교 시절의 학습습관부터 추적하여 시간성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 연구는 미진하다. 따라서 학업에 대한 자기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추적해 봄으로써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학사경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특히 학생 스스로 학업에 대한 내면적 자기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인간스스로 지니고 있는 복원력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학사경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자기 회고적 이야기를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통해 조명해 보고자 했다. 내러티브 연구는 기존의 질적 연구에서 다루어 왔던 특정한 경험적 국면에 한정된 접근이 아닌 생애과정에 따른 경험의 지속성을 시간성에 따라 조명해 볼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연구방법론이다[14,15]. 시간성에 바탕을 두고 현재 시점을 통해 표출되는 과거의 이야기는 현재의 행위에 대한 해석과 그 타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14]. 학사경고라는 사건은 현재 대학생활의 범위에 한정되어 있지만 한 인간이 사회가 부여한 학교교육이라는 제도적 틀 속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과거시점부터 학업이라는 연계선상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파생된 결과의 일면일 수 있으므로 시간성에 기초한 접근이 우선시 되어져야한다. 또한 내러티브 연구는 이야기를 통해 삶의 의미를 부여해줌으로써 내면적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표출된 이야기를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누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구성방법을 언어적 특성을 통해 세

부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방법론이다[15]. 따라서 학사경고라는 학업위기에 처한 연구 참여자가 이를 극복해 가는 자아의 모습을 이야기의 구성방법을 통해 시점별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라고 본다.

2.1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의 소속 학과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목적성 샘플링(purposeful sampling)으로 질적 연구에 있어서 자료의 질 확보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다[16]. 즉 선정된 주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학문적 배경과 학업에 관한 이해뿐만 아니라 풍부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질 확보를 위하여 소속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2014년부터 2016년 1학까지 총 5개 학기동안 한번이라도 학사경고(1.75점/4.5점)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 중 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학년 2명과 3학년 2명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승인위원회 승인(IRB No. 2016-13)을 거쳐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연구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자로 이들에게는 연구목적 및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한 정보를 인터뷰 전에 제공해 줌으로써 비밀보장의 권리를 엄격히 지키고자 했다.

2.2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심층면담 및 현장노트를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연구대상자의 선호에 따라 학과 회의실 및 여학생 휴게실에서 이루어졌으며, 평균 인터뷰 시간은 1시간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여학생이었으며 인문계고교 졸업자 1명과 특성화(실업계) 고교 졸업자 3명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수집은 '전공학문에 대한 학습경험은 어떠하십니까'란 연구 질문을 중심축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공 선택배경, 학습법, 시간관리, 직업관, 학사경고 등 다양한 촉진질문들을 통해 대상자가 자각하고 있는 자신의 학습법에 대한 분석이 학사경고라는 사건과 연계시켜 인터뷰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야기로 재구성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사질문과 반복질문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17].

2.3 자료분석

필사된 이야기 자료는 스토리 전개상 자연스럽게 대학입학 전 시점, 대학입학에서 학사경고 전 시점, 학사경고시점, 학사경고 후 시점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각 시점별로 전개된 이야기는 누구의 관점에서 어떠한 행위적 특징으로 묘사되는지를 이야기 속 주체와, 행위 패턴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Burke[18]가 드라마를 통한 내러티브 분석에서 사용한 행위자와 행위동기 및 목적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 구조를 파악한 방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이어서 시점별 이야기 구조가 담고 있는 스토리 주제를 도출해 냄으로써 학사경고와 관련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야기 속에서 자아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담고자 했다. 분석된 자료는 질적 간호연구자 2인과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가 1인의 피드백과정을 통해 자료 분석에 대한 타당성 검증 과정을 거침으로써 연구결과의 질 확보를 기하고자하였다[17].

3. 연구결과

화자들의 이야기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교육 환경에 직면하게 되는 입학 전·후의 학습습관 및 태도와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었으므로 대학입학 전 시점을 이야기 발달의 시작점으로 삼았으며, 시점별로 분류된 각 이야

Table 1. Narrative Analysis of Low Academic Achievement Stories

Time	Perspective	Characteristics of Action	Theme
The Period of Pre Entry into the University	**Other focused** (Father, Teacher)	Self with Compliance within the circumstances of strong Guidance	Outstanding Students Controlled by Helpers
The period of University Life before Academic Probation	**Narrator focused** (Self in the Chaos)	Self with Compliance without strong Guidance	A Costume Play as a Outstanding Student;
The Period of Academic Probation	**Other focused** (Friends)	Self with Compliance within the Circumstances of Substitute of Strong Guidance	Realize that I am a Low Academic Achiever
The Period of Life after Academic Probation	**Narrator focused** (Self initiated)	Self with Adaptability	Realize Who I am and What I have to do

기는 주체와 행위의 분류척도를 적용하여 그 특징을 도출해내었다. 구조적 특징을 담은 각 서사는 이야기 주제라는 의미체로 최종 통합되었으며 이는 Table 1과 같다.

먼저, '만들어진 우수한 아이'는 대학진학 전 중·고등학생 시절 화자의 학습습관 및 태도와 관련된 이야기이며 이야기 속 주체는 화자 인 '나' 보다 타자 즉 선생님과 부모님 중심으로 전개된 이야기이다. 두 번째 주제인 '우수한 아이 코스프레'는 대학진학 후 변화된 교육환경에 직면한 화자 자신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야기이다. 이어서 '부족한 자아와의 만남'은 학사경고를 받은 시점에서 학사경고라는 위기를 타개해 보고자 고군분투하는 화자의 이야기로 이야기 속 주체는 친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마지막 '독립된 실체와의 만남'속 자아는 학사경고라는 사건을 극복하고자 많은 시행착오 과정들을 격은 후 비로소 화자가 자신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이야기이며 이이야기 속 주체는 화자 자신이다. 따라서 시점별로 화자의 이야기는 타자중심(부모님, 선생님)-화자중심(혼돈의 나)-타자중심(친구)-화자중심(주도적인 나)의 구조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 각 단락별 인용되는 화자들의 이야기는 대표성을 띄는 부분들만 발췌하여 수록하고자 한다.

3.1 만들어진 우수한 아이: 완벽한 안내자를 둔 절대적 순종자인 자아

'만들어진 우수한 아이'는 대학진학 전 화자의 학업패턴 전반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 속 화자는 타인(부모님과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으며, 그 속에 존재하는 화자 자신은 학업성취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완벽한 안내자인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수동적 자아로 위치시키고 있다.

저는 방과 후 학교에서 돌아오는 순간부터 제가 잠 잘 때 까지 아빠가 항상 옆에서 공부를 시켰어요특히 고3 때는 매일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고 집에 와서 아빠랑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빠가 옆에서 공부하도록 시키시니까 시키는 대로 했고 성적도 간호학과 올 정도로 만족할 만 했어요특히 수학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고 성적도 잘 나오고 힘들지만 좋았어요(N4).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이끌어주셨어요. 선생님들이 하라는 데로만 했어요. 실업계교는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성적이 잘 나와요 (선생님이)시험에 나오니까 암기하라고 하면 그것만 암기하면 됐거든요 선생님들도 맨날 제가 일등하니까 칭찬해주시고 '너 간호학과 가도 되겠다'라고 자신감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똑똑한 애 인줄 알았어요(N1)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에게 부모님과 선생님은 화자의 학업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완벽한 안내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자는 그 절대적 안내자를 무조건 따르는 완벽한 순종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화자의 내면 속에는 부모님 또는 선생님이 완벽한 모범답안 제시자이며, 그 대상에게 순종할 경우 공부 잘하는 아이라는 성취결과물을 획득할 수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들어진 우수한 아이' 속 "나"는 말 잘 듣는 순종적 아이를 넘어 혼자서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춘 "나"인가? 라는 질문에서 본 주제 속 "나"라는 존재는 독립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나"임을 알 수 있다. 혼자서 무언가를 수행하기 이전에 이미 부모님과 선생님이 곁에서 지름길과 모범답안을 들고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는 아이는 항상 주어진 것과 제시된 것을 열심히 암기만 하면 되는 수동적 존재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그 땐 아빠가 짜 놓은 스케줄 데로 언제 무슨 과목하고 언제 쉬고 그 시간표가 있었어요암기할 것도 일일이 다 주시면 저는 그 걸 암기해서 시험보고 그랬어요아빠가 안주무시고 옆에 계시니까 저도 계속 책상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N4).

고등학교(실업계) 때 저는 선생님이 나눠주신 프린트물만 암기하면 됐어요 저는 무조건 암기해요. 그러면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간호학과 갈려면 방학동안 화학이랑 생물 같은 것을 공부해야한다고학원 다녀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N2)

3.2 우수한 아이 코스프레: 완벽한 안내자의 부재 속 절대적 순종자인 자아

'우수한 아이 코스프레'는 대학입학부터 학사경고 전

까지의 시점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야기이다. 화자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직면하게 되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완벽한 안내자인 부모님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황에서 순종적인 화자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살펴본 대목이다. 본 주제에서 화자는 대학입학 후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완벽한 안내자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지만 절대적 순종자로서의 수동적 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이 표출되고 있다.

입학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간호학과에 합격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대학에서)공부도 잘해서 똑똑한 애라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한테는 나 공부 안 해놀아, 이렇게 앞에서는 얘기하지만 집에 가서는 정말 무지 열심히 외웠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옛날처럼(고등학교 때) 그냥 모조건 외웠어요...근데 00수업시간에 갑자기 영어시험을 본거예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 지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적는 것 같은데 저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교수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내가 공부 못하는 애라는 것이 만천하에 들어나는 것만 같았어요(N1).

간호학과 입학하면서 기숙사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한테)간섭받을 일도 없고...그런데 너무 나태해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잘 못 일어나겠고, 공부도...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수업시간에는 잘 안 들어요. 그게 습관이예요. 저녁에 집에 가서 하면 된다는 생각이 강해요. 예전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N4).

위 이야기 속 화자는 독립적이고 주도적으로 공부해야하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나 예전 학습패턴인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무조건적인 암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스스로 자신이 독립적이며, 주도적인 학습능력이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러면서도 공부 잘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자기과시를 하고 싶어 하는 심리 또한 내비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부는 안 하지만 성적이 잘 나오는 똑똑한 학생으로 친구들에게 인식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매우 강하게 내포되어 있음이 "나는 애들한테는 논다고 하지만 집에 가면 무지 열심히 외워요"라는 대목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과시적 우등생 포장은 갑작스런 영어 테스트라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보통의 학생들이 지니는 감정보다 훨씬 강한 수치심이나 열등감과 같은 심리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이는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과한 자기비난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수한 아이 코스프레' 에서는 학업전략 및 학습습관 등에서 화자 스스로는 자신의 부족한 학습능력을 알고 있으나 타인에게는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어 현실과 실제 사이의 괴리에서 혼란스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

3.3 부족한 자아와의 만남: 완벽한 안내자 역할 대용체를 찾은 절대적 순종자인 자아

'부족한 자아와의 만남'에서는 학사경고를 받고 자신의 학업성취도가 타인에 비해 낮다는 사실을 자신과 타인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아픈 현실을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현실적 자구책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우수한 아이 코스프레'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는 알고 있으나 타인은 모르게 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에 중점을 둔 이야기였다면 '부족한 자아와의 만남'에서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자신은 물론 타인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자 스스로 선택한 대안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대안책은 자신과 늘 가까이 있는 주변인들 중에서 부모와 선생님의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는 대용체를 찾는 일이며, 그 대용체는 화자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위안이 되는 친구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라는 존재는 평등한 존재라는 관계적 함의가 이루어진 대상이므로 무조건적 도움을 주는 완벽한 안내자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제가 정말 멍청한가봐요. 정말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이런 거 보면 제가 너무 한심해요학사경고를 받았으니 나는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혼자서는 안 되니까 00이 한테 의존하게 되더라구요. OO이는 공부를 잘하는 애니까 무조건 OO옆에 앉았어요. 00이를 그대로 따라하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수업시간에 교수님 설명보다 그애 필기한 것을 무조건 토시하나 안 틀리게 베꼈어요그러다보니 저는 필기하느라 바쁘고 교수님 설명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00이도 얼마나 스트레스였을지 짐작이

가요. 자기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저까지 힘들게 하니까... 자꾸 제가 OO이 눈치를 보게 되더라구요(N1).

작년 1학기 때 학생경고를 받았는데 그 다음 학기는 잘해야 하잖아요. 부모님께도 미안하고... 저는 일단 혼자서는 못해요(공부). 자꾸 잡생각이 많이 나니까 누군가 같이 옆에 있어야 해요.. OO이와 집에 가는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커피 사주면서 많이 물어보고 같이 공부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친구도 할 일이 많잖아요. 제가 맨날 시간 뺏기도 미안하고 그랬어요(N3).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화자들이 선택한 완벽한 안내자(부모님, 선생님)의 대체자로 선택한 '친구'라는 존재는 부모나 선생님처럼 무조건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와 보상을 해주어야만 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완벽한 도움체가 되지 못함과 동시에 도움요청 행위에 대한 미안함과 같은 심리적 위축을 동시에 가중시키는 존재이기도하다. 즉 수평적 존재 속에서 느끼는 수직적 관계의 불편함이 짙게 배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학업향상과 같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결과적 측면에서도 친구라는 대용체는 회의적임이 언급되고 있다.

OO이가 많이 도와주고 같이 공부하고 그 애 노트는 제가 다 암기하다시피해도 성적은 전혀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깐 그 노트는 OO이를 위한 노트인거지 제게 맞는 노트는 아니였던거예요.그리고 저는 저대로 그 애한테 미안하고...(N1)

따라서 '부족한 자아와의 만남'에서 그려지고 있는 자아는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간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타인 의존적 성향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독립된 실체와의 만남: 주도성이 부여된 자아

학사경고를 받은 후 화자는 자구책을 모색해 보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자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은 후 무엇이 진정한 문제인지 스스로 답을 찾아 나서는 과정을 '독립된 실체와의 만남'이란 주제에서 다루고 있다. 본 주제에서 화자는 자신의 실체를 직시하기 시작하였으며, 보다 세밀히 자신의 학습행위들을 분석하고 자신에게 맞는 실행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함으로써 학업향상을 위한 가능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있다.

응용문제가 있으면 제가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고 응용해 보고 하려는 의도는 전혀 안하고 무조건 암기만 하는 습관이 있고 또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만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수업시간에 우선 교수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N1).

저는 아빠가 친구이자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예전엔 외톨이였는데 지금은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제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어요.예전에 수학은 항상 상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이번학기에 성적이 많이 올라서 다음 학기에 3.0까지 올리면 아빠한테 핸드폰 바꿔달라고 할거예요(N4).

또한 화자들은 자신보다 타인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에 더 큰 관심과 비중을 두며 살아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저는 공부 안하는 것이 걱정 돼요. 근데 제가 막 친구들을 즐겁고 재미있게 해주고 친구들이 저 때문에 웃고 하는 것을 보면서 즐겁고 기뻤어요.그래서 공부해야하는데도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일 시험인데.. 그러고 걱정하고.. 성적이 안 나오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저는 친구들한테 (소외당할까봐)더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즐겁게 해주려고 하고 그랬던거 같아요(N2).

이는 화자 내면에 자신 보다 타인이 중심이 되어 타인 위주로 시간을 할애하는 생활패턴이 이어졌고 그 결과로 자신에게는 성적부진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공부 못하는 사람으로 소외받을까 두려워 더 많은 시간을 친구들에게 할애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음을 스스로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로 집중할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얼마만큼을 해야 하는지 이제 감이 잡혀요.친구도

중요하니까 만나고 수다 떨고 그러지만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어요성적도 차츰 오르고 해서 요즘은 좋아요(N2).

화자는 스스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인지하고 친구의 시각이 아닌 자신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자 노력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실 가능한 목표설정을 통해 자신에게 부여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스스로 조절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다른 애들처럼 막 대형병원 가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하는 큰 기대는 이제 안하고 지금 수준에서 최대로 성적을 올리고 제 수준에 맞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도 보람 있을 거라 생각해요대형병원에 가는 것만이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N4).

따라서 학사경고 이후 시행착오를 겪고 난 후 화자는 자신의 학습습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였으며, 과도한 자기책망과 타인 중심의 시선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신이고 싶어하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로 성적 향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논의

학업성취에 어려움을 겪은 대학생이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시간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특히 학업에 대한 자기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시점별로 타자중심(부모님, 선생님)-화자중심(혼돈의 나)-타자중심(친구)-화자중심(주도적인 나) 등의 구조로 살펴보았다. 우선,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의 어려움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원인은 기존 연구결과[8,9]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습방법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미숙함이라 볼 수 있다.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의 기존 학습방법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 아닌 타인 의존적 학습방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부모나 교사 중심의 학습 환경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학습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학습태도가 고착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부모나 교사 중심의 외부 주도적 학습 환경에 순종한 결과 성적우수자라는 확실한 결과물을 얻는다는 경험에서 오는 자기 확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본 연구 참여자 모두 고교시절 성적우수자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사경고라는 학업 미성취 상황을 극복해 가는 과정의 단초는 학습에 어려움을 경험한 “나”라는 자아와 “나”를 만들어준 안내자(아버지, 선생님, 과외선생님, 친구) 그리고 그에 따른 나의 행위라는 삼각구도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먼저, ‘학업부진을 경험한 “나” 는 의존적 성향이 강한 자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타인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과 타인이 자신에게 보내는 반응에 민감히 반응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타인 의존적 성향이 강할수록 성공적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부분이다[1, 19-21].

또한 학업적응의 어려움에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요인으로 친구와 같은 사회적 관계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의 연구결과[1,10-13]와 같이 본고에서도 친구의 도움이 학업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타인 의존적 성향이 강한 자아일 경우 친구를 향한 기대(학업을 위한 절대적 안내자가 되어주길 원함)와 현실 사이의 괴리로 말미암아 친구라는 사회관계망은 학업성취를 위한 효과적인 매개체로서 작용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응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을 터득하기 위한 단초는 스스로의 학습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학습법은 단순암기이다. 자존감이 낮은 자아가 자신의 열등함이 발각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주는 최상의 도구로 선택한 방법이 단순암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수한 아이 코스프레” 주제에서 암기는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 학습법인지 알 수 있다. 이는 신정인과 김춘경의 연구[22]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학습부진을 경험한 대상자들에게 있어서 열등함의 발각에 대한 두려움은 심리적 위축이나 관계적 고립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내적인 탈피의 갈망은 그 무엇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나타난 암기라는 학습행위에서는 이해라는 요소가 배제된 채 행위적 암기만 강

하게 어필되고 있다. 이해를 통한 적용 및 응용의 학습단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조건 외우는 방식은 학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함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학습 성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암기는 중요한 학습행위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왜 이해 없이 암기만을 고집하는 학습방법을 택하게 되었을까? 그 근원에는 암기가 가장 단순하고 편하다는 방법적 논리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 단계적 그리고 응용적 학습방법을 접할 기회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5]. 즉 실업계 고교에서 학생들에게 얼마나 다양한 학습방법의 적용기회가 주어지고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순암기를 포함한 자기학습법에 대한 고민과 분석은 학생스스로 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하는 학습에 대한 자기 동기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Goldberger 등[23]이 언급한 앎이 주는 힘인 것이며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각 하고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취하는 순간부터 자아는 더 이상 열등한 존재가 아닌 힘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는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힘으로 말미암아 자아는 타인 의존성이 강한 자아에서 자기 주도성이 강한 자아로 스스로를 재발견하게 되며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재설정으로 학업성취 어려움에 대한 고리를 끊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본고에서는 대학입학 전·후의 학습 환경을 기점으로 학업성취를 위해 자기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만들어진 우수한 아이', '우수한 아이 코스프레', '부족한 자아와의 만남', 독립된 실체와의 만남' 등 4가지 주제로 다루고 있다. 각각의 주제를 통해 도출된 의미들은 자아라는 구심점을 축으로 학사경고라는 결과물 앞에서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해 가고자 얼마나 내적으로 고군분투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학업성취의 어려움은 과거의 학습경험과 연계되어 있었으며, 이를 스스로 인지하고 새로운 자신만의 학습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자아가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특정학과를 중심으로 하였고, 특성화고교 졸업생들의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고, 특성화고, 지역, 그리고 학과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적 고려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교육계가 항상 고심해야 할 부분은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수학습법의 개발이다. 학업 적응의 어려움은 학습과 관련된 성취여부 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건강한 자아로의 발달과 인격 형성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별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고교별 학력격차에 대한 문제를 감안한 대학입학전형방법과 교수학습법 그리고 학생 지지체계에 대한 체계적 준비 및 그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H. R. Kim. (2013). A study on developmental factors influencing college adjustment-focused on autonomy, social connectedness and career self efficac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4,* 85-105.

[2] J. Park & S. Park. (2017). Influence of college adjustment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development level of college students who majors in health or social welfare. *Korean J Clin Lab Soi, 49(2),* 180-186.
DOI: http://doi.org/10.15324/kjcls.2017.49.2.180

[3] M. H. Han. (2017). Factors affecting college ada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2(1),* 36-43.
DOI: http://doi.org/10.21032/jhis.2017.42.1.36

[4] Academy Information[Internet]. Available From: http://search.academyinfo/itrinity_new/search/search.jsp.(accessed Sep., 18, 2017).

[5] D. Kim., J. Kim & S. Lee. (2018). Analysis of the main causes of students dropping out of the college. *Study of Admission System, 6,* 187-218.

[6] S. J. Yeoun. (2013). The development an effects of a preventative learning consultation program for university underachiever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 Education, 25(3),* 643-660.

[7]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KRIVET), A strategies to improve the basic learning competencies of junior college students. Fundamental Research 03-13, p.1-118, 2003. Available From: http://www.krivet.re.kr/ku/index.jsp. (Accessed Nov. 09, 2017).

[8] S. W. Kang, E. K. Lee & N. M. Yan. (2000). A study about developing the academic support system through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between high achievers an underachievers in their academic performance in the

univers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12(2),* 221-242.

[9] S. W. Kim & H. T. Chae. (2001). Effectiveness a program for improving learning competency of underachievers at university,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20(3),* 25-41.

[10] Y. Kim.(2016). A qualitative study on 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tudents' experience of male-adjustment.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9(2),* 41-63.

[11] Y. A, Ju, Y. H. Kim & S. K. Won. (2012). An exploration study of the factors for understanding academic achievement failure and academic persistance on academy probation: Focus group interviews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4),* 47-69.

[12] S. A. Lee. (2017). A narrative inquiry into university students' difficulty of campus life who are placed under academic probation: Focus on social relations. *The Study of Anthropology of Education, 20(3),* 227-257.

[13] A. Jang & J. Yang. (2013).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students being on and overcoming academic proba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14(2),* 995-1013.

[14] P. Recour. (1984). *Time and narrative*.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1-137.

[15] J. I. Lee. (2004). *Narrative style and marital life: The life stories of Korean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6] H. A. Maxwell. (1996).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 p.69-76, California. Sage.

[17] M. Sandelowski. (1986).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merican Nursing Science, 8(3),* 27-37.

[18] K. Burke. (1945). *Introduction: The five key terms of dramatism.* In B. Kenneth(Ed.), A grammar of movies(pp.1-2). New York, NY: Prentice-Hall.

[19] R. M. Addison & M. Johnson. (1997). The building blocks of performance, *Business Executive, 11(68),* 3-5.

[20] S. H. Yang. (200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concept and the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in junior college in some a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0(3),* 376-390.

[21] S. H. Lee. (2006). Effects of learning motive enhancing program on academic self efficacy, learning habits and self esteem in underachieve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1),* 5-12.

[22] J. N. Shin & C. K. Kim. (2012). A phenomenological study on experiences of attribution in underachiever,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1),* 127-152

[23] N. R. Goldberger, J. M. Tarule, B. M. Clinchy & M. F. Belenky. (1986). *Knowledge, difference, and power: Essays inspired by women's way of knowing.* NewYork, NY: Basic Book: A Division of Harper Collins.

이 봉 숙(Bongsook Yih) [정회원]

・2007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 박사
・2009년 2월 ~ 현재 :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사회심리간호, Qualitative Research
・E-Mail : yihb@sehan.ac.kr